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오늘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한 주간은 ‘가정 성화 주간’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주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해체된 가정이나 위기를 겪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어, 그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 요셉이 이루신 가정을 말합니다. 성가정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지상 생활을 이끌어 가는 가정입니다. 성가정이 겪은 고통이나 시련은 구원 사업을 위하여 바치는 봉헌입니다. 성 요셉은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르는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모님의 온 삶은 영혼에 칼이 꽃히는 일곱 가지 고통으로 드러나기도 합

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아드님과 함께 구원 사업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성가정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정은 성가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가족 구성원이 구원 사업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정도 성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7년 안동교구장 사목교서는 ‘가정의 쇄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라는 말씀의 큰 제목 아래, 3년 동안 추진될 쇄신운동 중 첫 번째입니다.

가정은 ‘가정에 관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공동운명체처럼 함께 했습니다. 가정공동체는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가정교회들 위에 유기적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현실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가정의 쇄신을 위해 안동교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부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을 강화하고 상처의 치유를 도와주어 우리 시대에 올바른 가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교황 프란치스코,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

계림동 본당 전장호 프란치스코 신부



전 레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해체된 가정과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날입니다.

입당성가 : 114번 ‘나자렛 성가정’

본기도

†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집회서 3장 2절-6절.12절-14절

안 내 :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묵 상 : 부모를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하느님의 인정을 받고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나이들거나 지각을 잃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2독서 : 콜로새서 3장 12절-21절

안 내 :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공동체는 사랑을 입어 한마음이 됩니다.

묵 상 :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한마음이 됩니다. 용서, 평화, 감사가 넘치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2장 22절-40절

강 론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1-2쪽)

예물준비성가 :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 172번 ‘그리스도의 영혼’

영성체 후 묵상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구세주를 품어주신 성모와
그들의 보호자 성 요셉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구세주를 봉헌합니다.
내 품의 아들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하느님의 아들로 세상에 내어드립니다.

<침묵>

시메온의 축복과 한나의 감사 기도로
온 세상은 하느님을 뵈는 기쁨을 함께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모께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시메온의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기쁨과 아픔을 함께 겪어나가는 성가정으로 초대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4번 ‘나자렛 성가정(2)’

※ 공소사목 성금

| | | | |
|------|----------|------|---------|
| 안윤호님 | 100,000원 | 신후재님 | 20,000원 |
| 황영준님 | 50,000원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2,22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많은 본당(29개 본당)의 도움으로 2018년도 교구 달력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총 8,790부를 제작했고 수익금 4,395,000원은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성당으로
지정된 “갈전 본당”에 성전건립 기금으로 전액 보내졌습니다.



알 림

■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 방법 : 1.본당에 준비된 서명지 이용
2.온라인을 통한 청원
- * 신부님들께서는 공문 천안교 제2017-106호를 보시고 신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거된 서명지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주교회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신년인사회

- 일시 : 2018년 1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목성동 주교좌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초등부 복사단 연수

- 일시 : 2018년 1월 3일(수)14:00-4일(목)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첫 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세면도구, 목주, 복사복(개인별), 옷걸이, 실내화, 복사복 입고 찍은 사진 1장
- 참가비 : 1인 30,000원

■ 청소년 견진캠프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15:00
- 14일(주일) 17:00
- 장소 : 문경 정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교구 내 중·고등부 견진대상자 (현 중1-고2)
- 준비물 : 신앙성경(새번역), 목주, 주일미사준비, 따뜻한 겨울옷, 운동화, 세면도구, 필기도구
- 참가비 : 1인 80,000원
- 신청 : 2018년 1월 8일(월)까지

■ 안동교구청 사무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서류 접수 및 문의 : 12월 29일(금)까지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성령 세미나

- 일시 : 2018년 1월 5일(금) 14:00 - 7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세면구(수건), 필기구, 미사준비
- 참가비 : 10만원
- 신청 : 12월 31일(주일)까지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남성 제42차 꾸르실료

- 일시 : 2018년 1월 11일(목)16:00-14일(주일)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120,000원
- 추천 인원 : 각 본당 3명 내외
- 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65세 이하
- 신청처 : 본당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제85차 ME 주말

- 일시 : 2018년 1월 19일(금)19:00-21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1월 8일(주일)까지
- 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된 부부, 짝교우, 비신자, 타종교인 가능, 사제, 수도자
- 문의 및 신청 : 안동ME대표부부 (010-6580-8408, 010-6500-8408)

■ 갈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꽃감 판매

- 건식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3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2018년 파티마유치원 교사 채용 (상주 서문동 성당)

- 자격 : 유치원 정교사
-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신청 : candida1208@hanmail.net 또는 방문
- 문의 : 054-535-4851 / 010-2529-2696

■ 노인복지 한알(무료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입소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할머니)
- 입소 어르신 거주 지역 제한 없음
- 연락처 : 054-861-9256, 010-4509-2242

■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 2박3일 피정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

- 일시 : 2018년 1월 5일~7일, 2월 5일~7일
- 장소 : 경기도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내 민족화해센터
- 피정문의 : 010-6254-0057 전 크리스티나

가정, 사랑의 기쁨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빛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세상 한 가운데 나자렛의 가난한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나타남이며, 가정 성화의 계시이고 부르심입니다.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세상에 드러난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신경제주의 사상은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전통적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의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이루신 성가정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그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부부의 참된 사랑’이 자리합니다(사목현장, 48항 참조). 자기를 줌으로써 자기를 완성하는 이 사랑은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야 할 바탕입니다. 이 사랑은 인격적 만남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 진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완성에 이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은 커다란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선호합니다. 혼인 계약을 파기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혼인하는 이들의 수는 점점 감소하며, 혼자 살거나 가정을 이루기 전에 동거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정이란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혹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만 도움이 되는 그저 잠시 머무는 장소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결속은 무너지고 개인의 불확실한 바람과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사랑의 기쁨」, 33-34항 참조).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해는 가정의 유대를 왜곡하고 가족구성원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가정의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희생을 동반한 사랑, 일치로 이루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초대합니다. 초대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와 함께 오늘날 위기에 빠진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먼저 혼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너그럽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실하게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특히 혼인 전에 자녀를 둔 미혼모들에게 더욱 큰 사랑과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이들은 타인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 질타를 감지하면서도 기꺼이 생명의 복음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법률적 잣대로만 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이 알려 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이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서 현대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만을 보지 않고 생명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가꾸는 빛을 봅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장애는 갑작스럽게 삶을 파고들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가정의 안정과 바람과 기대를 송두리째 뒤엎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장애아라는 어려운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생명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인 고귀한 모습을 교회와 사회에 보여 줍니다(「사랑의 기쁨」, 47항 참조). 가정이 장애인 가족을 신앙 안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여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가정은 인간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이 사회에 알리는 복음 선포의 공동체가 됩니다(「가정 공동체」, 52항 참조).

극심한 빈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의 한계 상황을 매우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가정이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보다 종종 훨씬 힘겨운 것입니다(주교대의원회의 제14차 정기총회 최종보고서, 15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받아들이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데에는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는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와 같습니다. 온갖 형태의 가난과 고통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혼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고통과 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 ‘무고한 희생자’인 자녀들에게 사목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하십니다. 별거하는 이들, 이혼한 이들, 또는 내버려진 이들을 사목적으로 동반해야 하며,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이 그들 스스로 파문당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사랑의 기쁨」, 242-243항 참조). 교회가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만을 강요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은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 이 사회의 심장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사람들 사이의 조화와 화합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정성화주간을 보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족들이 더욱 친밀해지는 가운데 복음화 사명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족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의 복음화와 교회의 복음화, 더 나아가 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불어 세상 모든 가정들이 나자렛 성가정을 닮아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이성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기도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세월이 빛의 속도로 달려온 것일까.

2017년 정유년 정월 초하루 아침, 아이들과 식사 전 기도시간이다. 늘 하던 짧은 기도문 대신 내 땀에는 한해의 첫날이라 그날따라 조금 길게 조금 심각하게(?) 기도하였다. 기억하건대 올 한해도 가족들의 건강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평소와는 다른 엄마의 기도에 아이들이 약간의 쑥스러움과 약간의 민망함을 담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그 정유년의 마지막이다. 그 기도문대로라면 나는 더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더 열심히 레지오 활동도 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아이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다. 오늘 정유년의 마지막 날, 기도 속에 들어있던 나의 결심과 다짐과 약속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뒤늦은 반성을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본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말로 하기는 얼마나 쉬운가. 그래서 실제로 지킬 생각도 없는 약속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았는지, 어디 그뿐인가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보다 더 이기적이고 이보다 더 큰 욕심을 담은 기도가 어디 있을까?

주님이 반문하신다. 로사야! 너는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한다마는 그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자고 일어나면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하면 즐거울지 매일 생각하면서도 평일미사는 항상 다른 일보다 후순위였지 않았느냐, 묵주의 기도를 한번이라도 정성을 다해 해본 적이 있었느냐, 네가 가진 것의 일부를 기꺼이 나를 위해 내어놓은 적이 있었느냐, 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며 연도를 바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느냐, 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이 네 것이 아니라고 늘 무심하지 않았느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에는 미움과 질투와 증오가 가득한 날들이 더 많았음을.

내일은 무술년의 첫날이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작고 소박한 소망을 간절히 담은 그런 기도,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기도, 그래서 새해 첫날의 아침에 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다.

주님!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갈망하기보다 이미 주님이 제게 주신 것,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제 삶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일상 그 자체가 감사할 일임을 늘 깨닫게 하소서.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누군가로 인해 제가 행복해 했다면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워한 오늘을 제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 이 귀한 하루를 이 귀한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